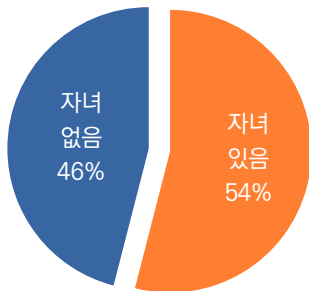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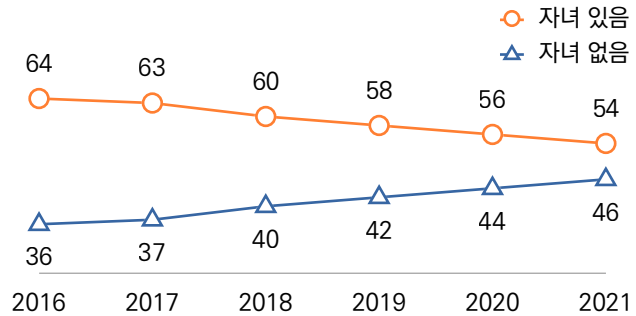
초혼 신혼부부 46%, '자녀 없다'!

- ▶ 2022년 12월에 발표된 '2021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'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혼 신혼부부(혼인신고 후 5년 이내)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54%로 나머지 46%는 자녀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.
- ▶ 2016년부터 최근 5년간의 신혼부부 유자녀(자녀 있음) 비율 추이를 보면 2016년 64%, 2018년 60%, 2021년 54%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,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[그림] 초혼 신혼부부 자녀 유무 (2021)**



[그림] 초혼 신혼부부 '자녀 유무' 비율 연도별 추이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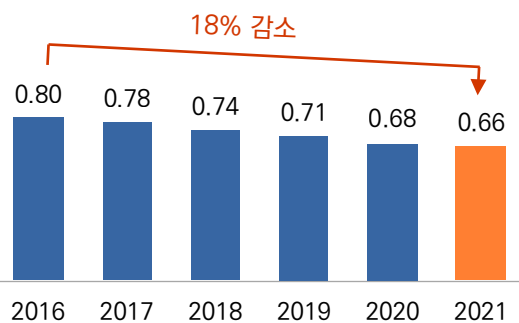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통계청,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, 2022.12.12

**초혼 신혼부부 기준으로, 매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부부 중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며,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대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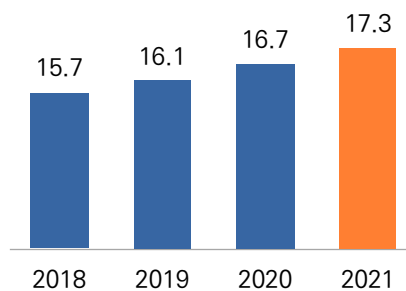
◎ 초혼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, 2021년 0.66명으로 5년 새 18% 감소!

- ▶ 우리나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, 자녀가 있는 부부의 평균 자녀 수도 감소하고 있다. 2016년 평균 자녀 수가 0.80명이었는데, 2021년에는 0.66명까지 떨어져 5년 새 18%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또, 신혼부부가 첫 자녀를 낳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2018년 15.7개월에서 2021년 17.3개월까지 늘었다. 2021년 기준 신혼부부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데까지 평균 1년 5개월이 걸리는 셈이다.

[그림] 초혼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 (%)



[그림] 초혼 신혼부부 첫째 자녀 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 (개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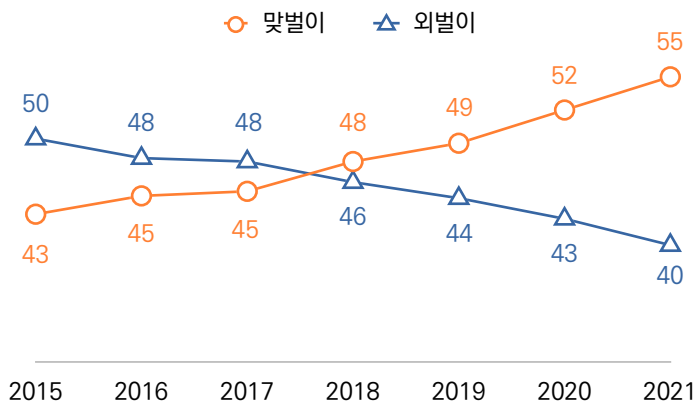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, 2022.12.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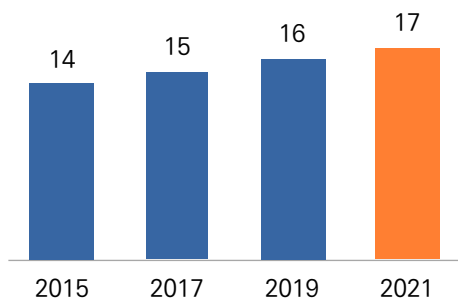
◎ 외벌이 신혼부부 6쌍 중 1쌍(17%), ‘아내가 일한다!’

- ▶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유형을 보면 ‘맞벌이’ 55%, ‘외벌이’ 40%였고, 전체 외벌이 부부 중 아내 혼자 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는 17%, 즉 외벌이 부부 6쌍 중 1쌍꼴로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. 소폭이기는 하나 ‘아내 외벌이 비율’이 2015년 14%에서 2019년 16%, 2021년 17%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.
- ▶ 또, 아내 외벌이의 경우 무자녀 비율이 56%로 맞벌이 부부(50%)와 남편 외벌이 부부(37%)의 무자녀 비율보다 높은 게 특징적이다. 아내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자녀 출산 등 자녀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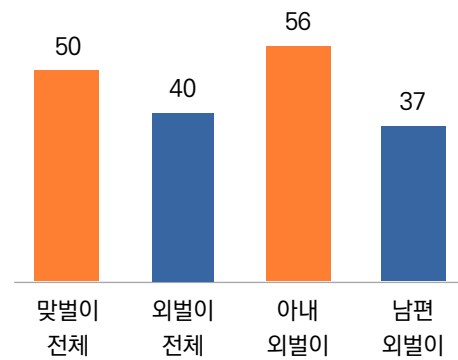
[그림]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·외벌이 추이* (%)



[그림] 외벌이 신혼부부 중 아내 외벌이 비율** (%)



[그림]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유형별 ‘무자녀’ 비율 비교* (2021, %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, 2022.12.12. / 기타(무직, 가사, 미상 등)는 제외

**자료 출처 : 중앙일보, “주변서 이상하게 안봐요” 외벌이 6쌍중 1쌍은 아내가 돈 번다 기사 참조, 2023.01.05.
(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31344#home>)